

# 동아시아의 시각적 근대성과 리듬의 기호학적 접근

김민형\*

## 【 차 례 】

- I. 왜 리듬인가?
- II. 리듬성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르페브르의 『리듬분석』을 중심으로
- III. 리듬분석의 기호학적 사각형: 리듬의 네 가지 요소
- IV. 리듬분석의 기호학적 사각형: 구성과 적용
- V. 리듬분석가의 역할과 동아시아 시각적 근대성 연구의 전망

## 국문초록

최근의 동아시아 연구에 있어 ‘시각적 근대성(visual modernity)’은 가장 활발하게 다루어지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특히 기존의 근대성 연구가 텍스트 중심의 문헌 연구에서 이미지 기반의 문화 연구로 확장되면서 시각적 근대성 개념은 보편적인 유효성을 획득하여 왔다. 즉 시각적 근대성 연구는 근대성을 구성하는 각기 다른 요소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며, 이러한 학문적 과정을 통하여 근대사의 숨겨진 단면들을 생생하게 현재화하는 작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시각적 근대성 연구에 있어 보다 깊이 있는 인식론과 정밀한 방법론의 수립을 위하여 리듬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기존의 역사적 접근법과 문화 연구의 텍스트 중심주의를 넘어서서 어떠한 이미지도 결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일정한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다는 이미지의 생태학적 본질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개별 이미지의 내부와 외부는 물론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관계성을 파악하면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포괄할 수 있는 기호학적 분석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방대한 작업의 예비적 단계로서 본 논문에서는 리듬 연

---

\* 고려대학교

구의 개척자라 할 수 있는 르페브르의 역작을 바탕으로 리듬분석을 위한 기호학적 모델의 구성과 적용의 한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관련 연구로의 확장성을 가늠하고자 한다.

열쇠어 : 시각적 근대성, 동아시아, 리듬, 리듬분석, 르페브르, 기호학적 사각형

## I. 왜 리듬인가?

최근 주목받는 동아시아 연구에 있어 ‘시각적 근대성(visual modernity)’은 가장 활발하게 다루어지는 개념 중의 하나이다. 특히 기존의 근대성 연구가 텍스트 중심의 문헌 연구에서 이미지 기반의 문화 연구로 확장되면서, 동아시아 모더니티가 분출되었던 다양한 미디어 공간들과 시각적 사건들은 물론 전통적인 식자층부터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의 각기 다른 문화 주체들을 입체적으로 고찰한다는 측면에서 시각적 근대성 개념은 보편적인 유효성을 획득하여 왔다. 동아시아와 서구 문명의 본격적인 무력충돌이자 동아시아 근대사의 실질적인 기점으로 인식되는 1840년 아편전쟁 이후 해당지역에는 다양한 서구 문물들이 빠르게 유입되었다. 사진과 영화 등 새로운 시각 도구들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무엇보다 이들 미디어 테크놀로지는 급격한 도시화와 대규모 전쟁 등 동아시아의 격동기를 포착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근대 동아시아의 ‘시각적 혁명(visual revolution)’은 급격하게 진척되었다. 즉 시각적 근대성이란 시각성(visuality)을 통해 근대성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의미 -modernity by the visual-와 함께, 시각성을 통해 근대성이 더욱 확고히 구축된다는 의미 -modernity through the visual 이 두 가지 방향성을 동시에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시각적 근대성 연구는 근대성을 구성하는 각기 다른 요소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며, 이러한 학문적 과정을 통하여 근대사의 숨겨진 단면들을 생생하게 현재화

하는 작업이다.

동아시아의 시각적 근대성 연구가 성취한 대표적인 성과 가운데 하나는 ‘상하이학(Shanghai Studies)’의 핵심영역이라 할 수 있는 근대 상하이의 시각문화 연구이다. 동아시아 모더니티의 발원지로서 일찌감치 자리매김한 상하이의 도시공간을 배경으로, 근대 출판문화의 만개와 초기 영화 산업의 부흥 및 소비문화와 광고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sup>1)</sup>

한편 최근 인문학계의 강력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은 정보 기술에 기반하여 융복합적인 데이터의 수집, 분석, 해석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분야가 바로 동아시아의 시각적 근대성 연구이다. 주요사례로는 근대 일본과 중국의 사회문화적 격동기의 면면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 MIT 대학의 “시각화하는 문화들(Visualizing Cultures)” 프로젝트 및 다수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들 수 있다.

지난 20여 년 간 동아시아 시각적 근대성 연구가 괄목할 만한 성취를 이룩하는 가운데, 인문학 연구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시각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근대성의 함의 또한 폭넓게 확장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시각적 근대성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정립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에 타당한 깊이 있는 인식론과 정밀한 방법론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20세기 초 동아시아 지역에서 폭발적으

---

1)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Lee, Leo Ou-fan, *Shanghai Modern: The Flowering of a New Urban Culture in China, 1930-194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Zhang, Yingjin, ed., *Cinema and Urban Culture in Shanghai, 1922-1943*,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Zhang, Zhen, *An Amorous History of the Silver Screen: Shanghai Cinema, 1896-1937*,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Laing, Ellen Johnston, *Selling Happiness: Calendar Posters and Visual Culture in Early Twentieth-Century Shanghai*,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Yeh, Wen-Hsin, *Shanghai Splendo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등이 있다.

로 등장한 다채로운 이미지들을 총체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어 보편성과 특수성을 겸비한 새로운 학문적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역사적 접근법과 문화 연구의 텍스트 중심주의를 넘어서서 어떠한 이미지도 결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일정한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다는 이미지의 생태학적 본질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개별 이미지의 내부와 외부는 물론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관계성을 파악하면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포괄할 수 있는 기호학적 분석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문적 변화를 배경으로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시각적 근대성 연구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리듬성(rhythmicity)’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MIT “시각화하는 문화들” 웹사이트<sup>2)</sup>

근래에 이르러 리듬에 대한 인문학적 관심은 실로 눈에 띄게 증가하여 왔다. 리듬이 어떻게 도시 공간과 일상성을 특징짓는가에 대한선구적인 연구에서부터, 20세기 전환기 유럽의 대중문화와 리듬의 관계에 대한 연구, 그리고 리듬의 개념을 새로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글로벌문화연구를

2) <http://ocw.mit.edu/ans7870/21f/21f.027/home/index.html> 참조.

비롯하여 인류학, 건축학, 생물학, 생태학, 인지과학 등을 아우르는 초학제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실로 방대하다.<sup>3)</sup>

물론 ‘리듬학(rhythmology)’의 학문적 성립을 논하기에 아직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리듬의 개념적 인식론적 지형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의 구축이 요청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가 비록 리듬론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닐지라도, 가장 예비적인 단계로서 본 논문은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리듬과 인간 문명, 리듬과 근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추구하며 인문학 전통의 한 축을 일구어냈던, 리듬 연구와 리듬 과학의 진정한 개척자라 할 수 있는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역작을 바탕으로 리듬분석(rhythmanalysis)을 위한 기호학적 모델의 구성과 적용의 한 사례를 소개하려 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층적으로 형성된 동아시아의 시각적 근대성을 보다 면밀하게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로서 본 논문에서는 리듬성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을 통해 구성한 리듬 요소의 기호학적 사각형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시각적 근대성 연구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시각 도구의 기술적 유입과 변형이 두드러지게 발현되었던 대중문화의 이미지에 주목하여 개별 이미지에 대한 관찰은 물론 이미지와 이미지의 관계성을 통해 하나의 시대적 리듬을 포착하는 ‘리듬분석가(rhythmanalyst)’의 역할에 대한 르페브르의 제안을 동아시아의 시각적 근대성 연구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

3) 참고할 연구로는 Lefebvre, Henri, *Rhythmanalysis: Space, Time and Everyday Life*, Trans., Stuart Elden and Gerald Moore, London: Continuum, 2004; Cowan, Michael, *Technology's Pulse: Essays on Rhythm in German Modernism*, London: Institute of Germanic & Romance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2012; Michon, Pascal, *Rhuthmos*, <http://rhuthmos.eu/> (accessed August 10, 2015) 등이 있다.

## Ⅱ. 리듬성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르페브르의 『리듬분석』을 중심으로

“리듬분석”은 1931년 포르투갈의 학자 두스 산투스(Lúcio Alberto Pinheiro dos Santos)가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사용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당대 저명한 철학자 바슐라르가 읽고 감탄하였다고 전해지는 이 논문에서 두스 산투스는 물질적, 생물학적, 심리적 차원으로 나누어 리듬의 현상학을 제시하였다.<sup>4)</sup> 이러한 두스 산투스의 리듬 개념을 후에 바슐라르가 『지속의 변증법』의 마지막 장에서 전격적으로 인용하며 심화시키게 된다.<sup>5)</sup> 즉 바슐라르는 리듬과 물질의 관계에 있어 리듬이 특정한 물질적 속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 물질이 리듬의 형태를 발전시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물질이란 어떤 정해진 결과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엇인가 “되기(becoming)” 위한 기회이자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들이 발현되는 리듬의 집합에 다름 아니라고 규정하였다. 두스 산투스가 제시한 리듬분석의 기본 원칙들을 수용하여 바슐라르는 ‘지속(duration)’의 속성을 늘 변모하는 일시적 현실로 파악하고, 생명의 역동성과 초자연적인 총체성이 리듬으로 귀결된다는 인식론을 역설하였다. 그에 따르면, 지속되는 현상들은 모두 리듬으로 이루어지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리듬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진정한 존재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sup>6)</sup> 리듬분석에 대한 바슐라르의 결론은 그가 평생을 바쳐 몰두하였던 지속의 변증법과 존재의 시학으로 귀결되는데, 즉 리듬의 발흥과 휴지 사이의 약동하는 상호작용이야말로 생명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양태라는 것이다.<sup>7)</sup>

4) 두스 산투스가 쓴 논문의 원본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당시 바슐라르에게 사적으로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Bachelard, Gaston, “Rhythmanalysis”, *The Dialectic of Duration*, Trans., Mary McAllester Jones, Manchester: Clinamen, 2000, pp.136~155.

6) Bachelard, Gaston, *The Psychoanalysis of Fire*, Trans., Alan C. M. Ross, Boston: Beacon Press, 1964, p.28.

7) Bachelard, *Op. cit.*, pp, 151, 21.

리듬성에 대한 바슐라르의 접근이 인식론적인 차원에 가깝다면, 르페브르는 선행된 리듬분석 작업의 지적 자산을 토대로 하여 리듬 개념을 본격적인 과학의 차원으로 확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유작으로 남긴 연구 노트 『리듬분석의 요소들(Éléments de rhythmanalyse)』<sup>8)</sup>에서 리듬학의 성립이 유효함을 강하게 확신하였고, 근대 사회의 과도한 물신화를 비판하기 위한 이론적 테제로서 리듬분석의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정립시키고자 하였다. 르페브르에게 있어 리듬이란 무엇보다도 근대적 시간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자연적, 생물학적, 사회적 시간의 이질적인 부조화 속에서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리듬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근대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일상성의 문제에 대한 통찰은 물론 근대적 시간의 기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장소와 시간, 에너지의 소비가 상호작용하는 곳”에는 반드시 리듬이 존재하며, 이 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각기 고유의 리듬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속도는 무의미하다.<sup>9)</sup> 따라서 고유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개별 존재들은 항상 비교 대조를 통해서만 무엇보다 더 느리거나 더 활동적이거나 하는 등의 상대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르페브르가 제시하는 리듬의 기본 정의이다.<sup>10)</sup> 이를 바탕으로 그는 리듬분석의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동작, 제스처, 행위 등의 일정한 반복없는 리듬은 존재할 수 없다. 둘째, 리듬의 선형적 과정과 순환적 과정은 끊임없이 교차 간섭한다. 셋째, 리듬은 측정과 예측이 가능한 정량적 차원을 포함한다. 넷째, 리듬은 궁극적으로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재통합한다. 이와 같은 기본 원칙들을 토대로 하여, 르페브르는 반복과 차이, 기계적인 것과 유기적인 것, 발견과 창조, 순환성과 선형성 등의

8) 본 논문에서는 르페브르 저서의 영어판(앞의 책)과 한국어판(양리 르페브르, 정기현 역, 『리듬분석: 공간, 시간, 그리고 도시의 일상생활』, 갈무리, 2013)을 참조하였다.

9) Lefebvre, *Op. cit.*, p.5.

10) *Ibid.*, pp.15~17.

개념적인 상반항들을 방법론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11)</sup>

### Ⅲ. 리듬분석의 기호학적 사각형: 리듬의 네 가지 요소

르페브르의 리듬분석 연구는 안타깝게도 그의 죽음으로 인해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다. 사유는 사용됨으로써 더욱 강화된다는 그의 언설<sup>12)</sup>을 교훈삼아 본 논문에서는 르페브르가 개별적으로 제시한 리듬분석의 요소들을 재검토하고, 이들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통합하여 리듬분석을 위한 기호학적 사각형의 한 가지 모델을 구성하고자 한다. 기호학적 사각형 구성을 위하여 르페브르의 저술로부터 필자가 선별한 리듬의 요소는 상대성, 규칙성, 동조성, 변이성의 네 가지이다. 이들 네 요소는 탄생부터 성장, 변형, 소멸에 이르기까지 개별 리듬의 생애주기와 연관된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며, 기호학적 사각형 모델에 배치하였을 때 인접항과의 결합을 통하여 네 개의 리듬계(rhythmia)를 형성하게 된다. 이 네 개의 리듬계를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용하여 개별 이미지의 구성 원리 및 이미지들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 1. 상대성(relativity)

상대성이란, 각각의 리듬이 상호 관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상반 혹은 모순의 양상을 보임을 드러내는 요소이다. 상대성의 요소는 주로 리듬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음악, 연설, 신체 운동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리듬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A, B

---

11) *Ibid.*, pp.6~9.

12) *Ibid.*, p.69.



와 같이 최소 두 개의 서로 다른 값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듬의 상대성은 또한 A, B의 개별 값을 시간과 공간에 따라 분리할 뿐만 아니라, 개별 값에 대한 특정한 위치를 지정해준다. 즉, 리듬을 이루는 최소 두 개의 값은 A-B, B-A, A-A, B-B와 같이 결합하여 높고 낮음, 크고 작음, 넓고 좁음 등의 일정한 흐름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리듬은 상대성이라는 중요한 속성에 의해 ‘느림’ 혹은 ‘빠름’과 같은 절대값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더 느림’ 또는 ‘더 빠름’과 같이 상대적인 관계성만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 2. 규칙성(regularity)

규칙성은 리듬의 구조 및 작동과 관련이 있는 요소이다. 리듬의 규칙성은 무엇보다도 리듬을 인지하고 창출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문화인류학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인간과 리듬성의 최초의 관계 설정은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육체의 동작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3)</sup> 그러나 리듬의 규칙성은 단순한 시간적 순서와 같은 기계적인 차원이라기보다 구성 값들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에 의해 통제되는 일정한 주제의 형성을 의미한다. 르페브르는 리듬의 규칙성을 다층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그는 선형성과 순환성의 통합에 의해 리듬의 규칙성이 획득된다고 파악하였다. 특히 그는 사회적, 종교적 의례의 반복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sup>14)</sup> 결국 리듬의 규칙성은 시간, 공간, 행위자를 기본적으로 체계화하면서, 물리적이고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리듬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가를 설명하는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다.

---

13) Leroi-Gourhan, André, *Gesture and Speech*, Cambridge; London: The MIT Press, 1993 [1964] 참조.

14) Lefebvre, *Op. cit.*, p.39, 94.

### 3. 동조성(conformity)

동조성은 타자나 소속 집단의 리듬 값을 수용, 추종, 호응하는 것을 일컫는다. 리듬의 동조성은 모방에 기반하는 인간의 사회성과 인류 문명의 원리 및 리듬성과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설명하며, 특히 기계화된 근대 사회에서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리듬의 요소라 할 수 있다. 소위 ‘테일러 시스템(Taylor System)’ 혹은 ‘포드 시스템(Ford System)’이라 불리우는 근대 산업문명의 원리는 도구와 생산품의 표준화뿐만 아니라 집약적인 순환 동작을 단순화하여 특화시키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러한 산업 원리가 바로 노동자 개개인이 개별 리듬을 저버리고 스스로를 기계화된 리듬과 일치시키는 동조적인 특성을 잘 보여준다.<sup>15)</sup> 리듬의 동조성은 동물, 어린이, 여성, 군인, 학생 등 특정 집단을 규정하고 통제했던 근대 사회의 원리를 잘 보여주며, 식민주의의 특성과도 맞닿아 있다. 한편 리듬의 동조성은 균질화되고 안정화된 사회적인 리듬을 자발적으로 유기하고 탈피하려는 반작용을 일으키는 근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4. 변이성(variability)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리듬의 마지막 요소는 변이성이다. 변이성은 리듬의 이중적 양태를 드러내는데, 일정한 규칙을 파괴하는 한편으로 새로운 형태의 규칙을 창조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리듬의 양가적인 속성에 대해 르페브르는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리듬의 모든 흐트러짐(혹은 모든 ‘불규칙.’ 공식적으로 이 말은 ‘규제완화’를 의미하게 되었지만)은 갈등적 결과를 야기한다. 즉, ‘고장을 일으키고’ 방해한다. 이는 더 이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해를 입은 상태, 일반적으로 심각한 장애 상태를 암시한다. 또한 시간 속에 발명과 창조로만 메울

---

15) Leroi-Gourhan, *Op. cit.*, pp.20, 228, 253.

수 있는 빈틈과 구멍을 만들어 낸다. 발명과 창조는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위기’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장애와 위기의 원천은 리듬들 속에 있으며 리듬들에 대해 효과를 만들어 낸다. 제도, 경제성장, 인구, 교환, 노동 등의 리듬들은 현 사회의 복잡성을 만들고 ‘표현한다.’ 가령, 이런 관점에서 혁명 이후의 리듬들의 변화를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16)</sup>

따라서 리듬의 네 번째 요소인 변이성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정한 패턴에서 시작하는 리듬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동시에, 르페브르가 역설하듯이 우리의 현실에서 완벽한 반복은 허구에 불과하며 반복에는 필연적으로 차이의 발생이 도래하게 됨을 설명한다. 즉 리듬은 반복으로 이루어지지만, 리듬에 있어 반복은 차이를 배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차이를 생성한다.<sup>17)</sup> 르페브르는 반복을 리듬의 필수 요소로 설명하면서, 리듬의 또 다른 차원인 변이를 항상 포함시켰다. 이를 발전시킨다면, 리듬은 반복으로부터 태어나고 변이를 통해 살아간다. 결국 반복 없이 리듬은 생성될 수 없고, 변이 없이 리듬은 지속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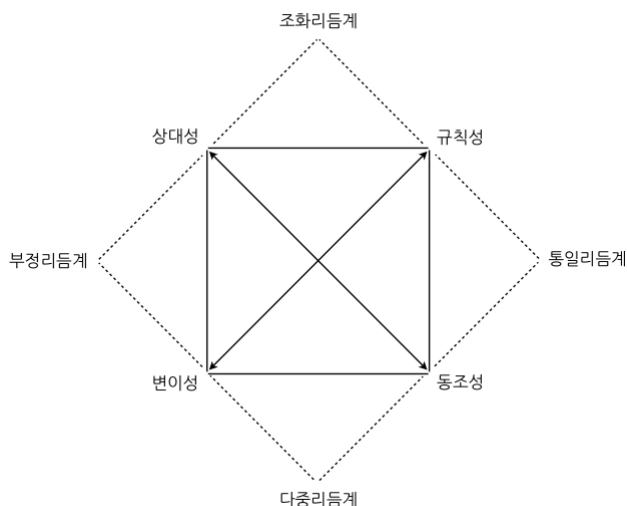
#### IV. 리듬분석의 기호학적 사각형: 구성과 적용

질서정연하게 되풀이되는 패턴이나 어떤 물질의 일정한 흐름 등 일반적으로 리듬을 정의하는 방법들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변함없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특성을 꼽는다면 리듬은 결코 고정된 형태나 부동의 현실이 아닌 부유하거나 불안정한 양태까지도 내포하는 동적인 현실들을 광범위하게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리듬이 완벽한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끊임없이 안정성을 지향하는

16) Lefebvre, *Op. cit.*, p.44(강조는 저자, 번역은 한국어판 143~144쪽에서 인용).

17) *Ibid.*, p.7.

우주 삼라만상의 원리에 기초하는 생명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안정성(stability)은 이미 불안정성(in-stability)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불안정성은 항상 안정성의 내부(in stability)에 공존하는 것이다. 리듬이란 결국, 다음의 리듬 사각형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요소들 사이에서 줄기차게 흔들리고 동요하는 흐름과도 같은 일종의 ‘생명의 기술(the art of life)’에 의해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리듬분석을 위한 기호학적 사각형의 구성

리듬분석을 위한 기호학적 사각형을 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적으로 르페브르가 그의 리듬 연구에서 성취했던 리듬성의 다양한 양태들의 목록을 재검토하였다. 그리하여 앞에서 상술한 리듬의 네 가지 기본 요소를 각 항에 배치하여 기호학적 사각형의 기본 형태를 갖추고, 다시 인접항과의 결합을 통하여 네 개의 리듬계(rhythmia), 즉 조화리듬계, 통일리듬계, 다중리듬계, 부정리듬계를 형성하였다. 각각의 리듬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조화리듬계(eurhythmia)

조화리듬계는 서로 다른 성질을 지닌 리듬들의 연계를 통하여 각각의 리듬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상 상태에서 동기화(synchronization)될 수 있는 상태를 상정한다. 네 가지 리듬 요소 중 상대성과 규칙성 사이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는 조화리듬계는 각종 유기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자연 상태에 널리 존재하는 리듬계이다.

## 2. 통일리듬계(unirhythmia)

통일리듬계는 리듬의 동조성이 극적으로 증가할 때, 즉 집단 체조나 군사 훈련과 같은 경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통일리듬계에서는 하나의 단일한 리듬이 일종의 안내자 역할을 하며 전체적인 시공간으로 퍼져 나가게 되고, 각기 다른 개별적인 리듬들이 종국에는 하나의 거대한 시계에 맞추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sup>18)</sup> 집단 내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통일리듬적인 방향성은 개별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은 힘으로 작용하며, 때로는 파시즘 국가나 종교의 원리주의와 같이 극단적인 통치 체제로 확산되기도 한다.

## 3. 다중리듬계(polyrhythmia)

다중리듬계는 가장 이상적으로 리듬이 작동하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각기 다른 다수의 기관들이 모여 하나의 신체를 이루는 상태나 수많은 유동 인구가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제각각 움직이지만 별다른 충돌없이 균형을 이루는 도시의 분주한 거리 등을 들 수 있다. 다중리듬계는 리듬의 동조성과 변이성 사이의 조화를 이

---

18) Van Leeuwen, Theo, *Introducing Social Semiotics*,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5, p.194.

름으로써,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개별적인 리듬과 더불어 전체 개체의 리듬을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리듬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 4. 부정리듬계(dysrhythmia)

부정리듬계는 여기에 속한 리듬들 사이에 조화로움이 깨지거나 변형되고 혹은 우회하는 일종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가리킨다. 일반적인 병리학 연구가 자연 세계에서의 리듬의 붕괴나 분열에 대한 포착에 집중하듯이, 부정리듬계는 때때로 치명적인 비동기화를 야기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파멸에 이르기도 한다.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리듬분석을 위한 기호학적 사각형의 구성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일차적으로 내리게 된 결론은 실제 세계에서 벌어지는 리듬 현상들의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다중리듬계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각종 유기체, 자연 생태계, 사회 조직 등의 예를 살펴본다면, 우리의 현실을 구성하는 시공간은 정녕 활기 넘치고 상호보완적인 리듬들로 가득 차 있다. 일찍이 다수의 사상가들이 자연세계와 인간사회가 긍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다중리듬의 양태들을 언급해 온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그러한 사상가 중의 한 사람인 홀(Edward T. Hall)은 그의 저서 『생명의 춤』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리듬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에 의해 서로 결합되고 시간이라는 감추어진 벽에 의해 서로 고립되는가의 문제”를 심도있게 고찰하였다.<sup>19)</sup> 그는 시간을 문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문화적 시간의 종류를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수행하는 “단선적 시간(monochronic)”과 한꺼번에 복수의 업무를 처리하는 “다중적 시간(polychronic)”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다중적 시간의 문화

---

19) Hall, Edward T., *The Dance of Life: The Other Dimension of Time*, New York: Anchor Books, 1983, p.3.

에서는 모든 일이 늘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반면, 일, 스케줄, 절차를 중시하는 단선적 시간 체계에 의해 근대 산업문명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는 홀은 단선적 시간이 마치 현대의 일상을 구성하는 유일하고도 논리적인 방식인 것처럼 다루어지지만, 그것은 인간 본연의 생물학적 리듬이나 창조적인 욕구에 내재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자연 속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님을 지적하였다.<sup>20)</sup>

## V. 리듬분석가의 역할과 동아시아 시각적 근대성 연구의 전망

도입부에서 서술하였듯이 본 논문은 동아시아의 시각적 근대성 연구에 있어 리듬 개념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리듬성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법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리듬분석을 위한 기호학적 사각형을 구성하였다. 그렇다면 본 연구가 향후 진행해야 할 작업 중의 하나는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하여 리듬분석의 기호학적 사각형을 폭넓게 적용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르페브르가 자신의 연구에서 미리 그려본 ‘리듬분석가’의 초상을 현실화하는 작업과 직결된다.

과학으로서의 리듬학과 리듬분석 방법론의 초안을 제시하였던 르페브르는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리듬학의 수행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의 문제를 거론하였고, 그리하여 등장한 개념이 바로 리듬분석가이다. 그에 따르면, 리듬분석가는 “귀를 기울이지만 단지 말이나 정보, 파트너 혹은 환자의 자백과 고백 같은 것만 듣는 것은 아니다. 그는 세계를 듣는다. 특히 사람들이 경멸하듯 소음이라고 부르는, 별 생각 없이 ‘웅성거림’이라고 치부하는, 그러나 의미들로 가득한 것에 귀를 기울인다. — 그리고 그는 침묵을 듣는다.”<sup>21)</sup> 리듬분석가는 중립적이면서 성급한 해석을 자제해야 하는 정신분석가와와는 달리 자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우선

20) *Ibid.*, pp.46~49.

21) Lefebvre, *Op. cit.*, p.19(번역은 한국어판 88쪽에서 인용).

자신의 몸부터 들으며, 이 때 그의 몸은 하나의 메트로놈 구실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리듬분석가는 자신의 리듬을 기준으로 대상 안팎의 리듬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각각의 리듬을 개별적으로 분명하게 인지하고 최종적으로 이들을 통합한다. 세상의 어떤 존재도 부동의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리듬분석가는 그것의 한없는 느낌과 끊임없는 운동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sup>22)</sup> 근대 산업사회가 야기한 극단의 물신화를 지속적으로 비판했던 르페브르는 이미지의 흐름과 미디어의 물결 속에서 특정 리듬을 능숙하게 포착할 수 있는 숙련된 리듬분석가가 된다면, 거짓된 현전의 효과를 유발하는 사물들의 현재라는 함정을 넘어서는 리듬분석의 작업을 통해 소박한 대상으로부터 강력한 현전성(presence)을 창조해내고 그 모든 현재(present)들을 재소환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sup>23)</sup>

본 논문에서 동아시아의 시각적 근대성 연구를 위하여 리듬분석가의 업무를 예시적으로 수행하려는 시공간은 1937년 2차 중일전쟁의 발발을 기점으로 정치 사회 문화적 구조가 급격하게 변동했던 1930년대의 상하이이다. 리어우판이 상세하게 분석하였듯이 1930년대 초반 상하이는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도 코스모폴리탄적인 시기를 관통하고 있었다. 특히 당대 수많은 유행어를 낳았던 ‘신(新)’이라는 접두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sup>24)</sup> 상하이의 도시문화는 구세계와 신세계, 근대의 서구와 전통의 중국이 복잡다단하게 얹히고 설켜서 ‘더’ 새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목받았던, 그야말로 리듬의 상대성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었던 시기를 대변한다. 이러한 시대적 리듬은 다수의 대중문화 이미지에도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상하이 풍경”이라는 제목의 그림 3은 상하이에서 생산되어 널리 유통되었던 근대 중국의 대표적인 월간 화보인 『모던 스케치』의 창간호에 게재된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이다. 근대적인 콜라주 기법을 사

22) *Ibid.*, pp.19~20.

23) *Ibid.*, pp.23~24.

24) Lee, *Op. cit.*, p.31.



용한 작품으로, 내용적으로도 분할된 신체 이미지와 신사용 구두, 양주 병, 자동차 바퀴 등 서구 문물의 대표적 아이템들이 무질서하게 섞여서 각각의 요소들 간의 상반 혹은 모순의 양상이 두드러진다. 이어지는 그림 4의 제목은 “표준 중국인”이다. 작품 속 시각적 요소의 면면을 살펴보면, 중심인물은 한쪽 발에는 중국 전통 신발을 다른 한쪽에는 양장 구두를 신고, 손에는 중국의 월도(月刀)와 머리에는 서양 모자를 쓰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작품의 인물이 해괴하고 기상천외한 모습을 띄고 있으면서도 어디론가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해당 작품은 일정한 규칙을 파괴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규칙을 창조하는 리듬의 변이성을 통하여 당대 중국인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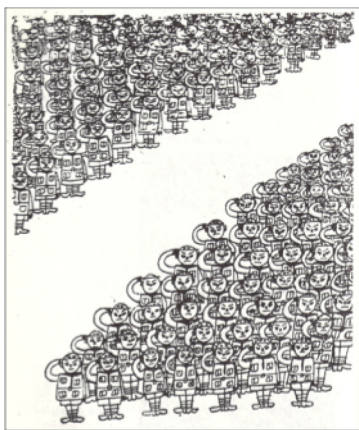
[그림 3] “상하이 풍경(上海風景).”  
Modern Sketch 1 (1934)



[그림 4] “표준 중국인(標準中國人).”  
Modern Sketch 25 (1936)

한편 1930년대 후반 전쟁의 발발과 함께 만개했던 상하이의 도시문화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든다. 무엇보다 근대 상하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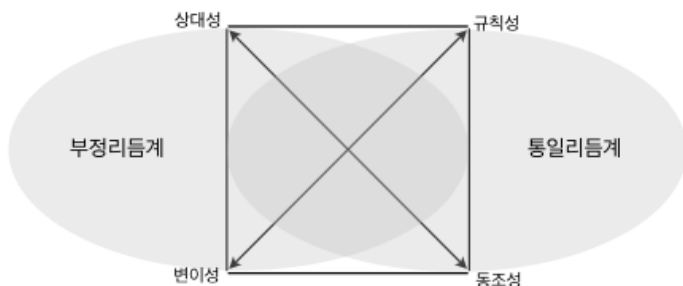
대중문화를 이끌었던 수많은 지식인과 예술인들이 도시를 떠나 내륙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전장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작품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그림 5]와 [그림 6]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쟁 전 상하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던 예술가들이 전쟁기에 집중했던 작업들은 기존의 자유분방하고 무질서한 작품 세계와는 철저히 구별되는 이미지의 세계이며, 이들 이미지들이 발현하는 리듬의 특성은 규칙성과 동조성이 한층 고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30년대 상하이의 대중문화에 대한 리듬분석을 간단하게 결론 내린다면, 전쟁 전 리듬의 상대성과 변이성이 극도로 확장되었던 부정리듬계의 세계를 표출하던 상하이의 대중문화 이미지는 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규칙성과 동조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통일리듬계의 세계로 치닫고 있다.



[그림 5] Huang Yao.  
“We will follow the patriotic  
martyrs’ way!” *Salvation Manhua*(1937)



[그림 6] Baibo. “New great wall.” *War  
Resistance Manhua* (1938)



[그림 7] 리듬분석의 기호학적 사각형 적용 사례(1930년대 상하이 대중문화의 경우)

본 논문에서 예시적으로 적용해 본 리듬분석의 기호학적 사각형은 향후 동아시아의 시각적 근대성 연구에 있어 보다 많은 이미지의 수집과 분류, 분석을 통해 입증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르페브르가 소묘했던 이상적인 리듬분석가의 초상을 다시금 상기해 본다면, 우리는 온몸과 온 감각을 동원하여 세계, 시간, 환경을 지각하는 방식과 관점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며, 초학제적인 데이터와 방법론을 활용하여 시대의 다양한 표상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현재 디지털 인문학이 야심차게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시각 아카이브와의 접목 또한 동아시아 시각적 근대성 연구 및 보다 확장된 리듬분석의 적절한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성도, 『구조에서 감성으로: 그레마스의기호학 및 일반의미론의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 앙리 르페브르, 『리듬분석: 공간, 시간, 그리고 도시의 일상생활』, 정기현 역, 갈무리, 2013.
- Bachelard, Gaston, *The Dialectic of Duration*, Trans., Mary McAllester Jones, Manchester: Clinamen, 2000.
- \_\_\_\_\_, Gaston, *The Psychoanalysis of Fire*, Trans., Alan C. M. Ross, Boston: Beacon Press, 1964.
- Cowan, Michael, *Technology's Pulse: Essays on Rhythm in German Modernism*, London: Institute of Germanic & Romance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2012.
- Hall, Edward T., *The Dance of Life: The Other Dimension of Time*, New York: Anchor Books, 1983.
- Hung, Chang-Tai, *War and Popular Culture: Resistance in Modern China, 1937-194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 Laing, Ellen Johnston, *Selling Happiness: Calendar Posters and Visual Culture in Early Twentieth-Century Shanghai*,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 Lee, Leo Ou-fan, *Shanghai Modern: The Flowering of a New Urban Culture in China, 1930-194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Lefebvre, Henri, *Rhythmanalysis: Space, Time and Everyday Life*, Trans., Stuart Elden and Gerald Moore, London: Continuum, 2004.
- Leroi-Gourhan, André, *Gesture and Speech*, Cambridge; London: The MIT Press, 1993 [1964].
- Michon, Pascal, *Rhuthmos*, <http://rhuthmos.eu/> (accessed August 10, 2015)
- Van Leeuwen, Theo, *Introducing Social Semiotics*,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5.
- Yeh, Wen-Hsin, *Shanghai Splendo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 Zhang, Yingjin, ed., *Cinema and Urban Culture in Shanghai, 1922-1943*,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Zhang, Zhen, *An Amorous History of the Silver Screen: Shanghai Cinema, 1896-1937*,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Visualizing Cultures, MIT, <http://ocw.mit.edu/ans7870/21f/21f.027/home/index.html>  
(accessed 10August 2015).

# Visual Modernity of East Asia and a Semiotic Approach to Rhythm

Kim, Min-Hyoung

Since I began conducting this general exploration of visual modernity of East Asia during the early twentieth century, it has seemed problematic to apply traditional analytic approaches to visual cultures engendered from a period of upheaval the likes of modern East Asia due to the distance between images and reality, as they vary depending on the intensity and the extent of experiences of those viewers in the numerous domains. In order to grasp the sheer imagistic force of the East Asian visual culture on the modern era, I find it significant to utilize semiotic strengths embracing both macro perspectives and micro analysis: the conception of rhythm is expected to carry out a greater role in such studies. In this study, I will revisit Lefebvre's rhythmanalytic elements and then demonstrate my construction of a semiotic square of rhythm including a topology of four different rhythmia within it.

Key Words: visual modernity, East Asia, rhythm, rhythmanalysis, Lefebvre, semiotic square

투고일 : 2015. 08. 15. / 심사일 : 2015. 08. 30. / 심사완료일 : 2015. 09. 05.